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가고시마현청 다언어 정보지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VOL.189

1. 국제교류원의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주희)

-안녕하세요! 가고시마!

2. 지사 관련 새 소식

-조지아에서 손님들이 가고시마에 오셨습니다.(5 월 24 일)

-조지아 명예 영사 임명식 및 취임 피로연에서 축사를 하였습니다.(5 월 25 일)

3. 가고시마 소식

-중화항공의 정기편이 4 년만에 재개되었습니다.(5 월 7 일)

4. 가고시마 제철 관광

-모레 제전이 열렸습니다.(5 월 3 일 ~ 5 월 5 일)

## 국제교류원 칼럼

### ● 안녕하세요 ! 가고시마 !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주희 (한국출신) —

안녕하세요! 4 월에 가고시마에 오게된 한국 출신 국제교류원 김주희입니다.

벌써 가고시마에 온지 두 달이 넘어갑니다. 골든위크도 지나고 일본에서의 생활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친절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노히라 전망대에서 친구와(2018년)

사실 저는 2018년에 관광으로 가고시마에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쿠라지마와 이부스키와 같이 멋지고 흥미로운 관광지와 흑돼지 돈까스와 가고시마 라멘, 시로쿠마 등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며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고시마에 오게되어 더욱 더 기쁘고 앞으로는 가고시마에 거주하면서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특히 가고시마의 야쿠시마, 아마미오시마와 같은 아름다운 섬들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에는 꼭 메루마가에 칼럼을 게재할테니 많이 기대해



시로쿠마와 함께

주세요. 또 가고시마 시내 구석 구석 거리들을 돌아다니며 저만의 가고시마에서의 사랑스러운 공간들을 많이 찾고 싶습니다.

저의 취미는 한국의 프로야구를 보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종종 직관에 갔었습니다. 야구장에서 먹는 치맥을 정말 좋아합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의 프로야구 직관도 가보고 싶습니다. 혹시 야구에 흥미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말을 걸어주세요.

한국어의 유명한 구절중에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잃지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때와는

달리 가고시마에 오랜 기간 살게 되면서 점점 가고시마에서의 일상이 익숙해지겠지만, 가고시마에서의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야구장에선 치맥이죠!

## 지사 관련 새 소식

### ● 조지아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5월 24일) ●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과 이어져있는 국가 조지아에서 손님들이 가고시마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조지아와 우리 현은 온천, 세계유산 그리고 제조법이 비슷한 흑초와 와인 등 공통점이 많으며, 와인 외교의 상대로 우리 현을 선택해주신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알렉산더 외무 부대신은 농업이 발달한 가고시마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가고시마 조지아 명예대사를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인 레자바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가고시마를 PR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과 조지아의 교류가 한 층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조지아의 여러분과 단체사진



알렉산더 외무 부대신으로부터 기념품증정



레자바 주일 조지아 특명전권  
대사로부터 와인증정

●조지아 명예 영사 임명식 및 취임 기념 피로연에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5 월 25 일) ●

모리 요시히사 주가고시마 조지아 명예영사 임명식 및 취임 피로연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  
였습니다.

축사는 모리 요시히사의 지금까지의 활약과 현저한 공적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  
고, 가고시마 조지아 명예영사 및 상공회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조지아와 우리 현의 교류  
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로연에서는 조지아 와인과 조지아 요리의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조지아 합창단의 양  
국의 국가제창이나 조지아 민속 무용의 무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과 조지아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리 요시히사를 위해 축사를 하는 모습

## 가고시마 새소식

### ●중화항공의 정기편이 4 년만에 재개되었습니다.(5 월 7 일)●

코로나 19 에 의해 운항이 중지되었던 대만과 가고시마를 잇는 중화항공의 정기편이 4 년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가고시마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에는 대만에서 온 손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가고시마현의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 가고시마 제철 관광 정보

### ● 모래 제전이 열렸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5일) ●

올해로 37년째를 맞는 <2024 후키아게하마 모래 제전>이 5월 3일 금요일부터 5월 5일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모래 산책~세계의 보물을 찾으러 가자~>였으며 회장에는 몽생미셸이나 피라미드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세계유산이 모래 조형물로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는 모래 조형물의 라이트업이나 불꽃놀이와 모래 조형물의 콜라보도 이루어졌습니다.



난사쓰 지역진흥국과 미나미사츠마  
농업협동조합의 「몽생미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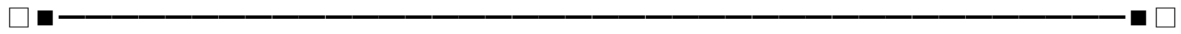
미나미사츠마 시청직원의 히메지성



일본 모래 조형 연맹원(미나가와씨)의  
「피라미드와 아라비안나이트」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여러분, 7월의 칼럼 어떠셨나요? 이번 호는 올해 부임한 김주희 교류원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김주희 교류원은 부임한 지 얼마 안됐지만 일본의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매일 웃는 얼굴로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그녀가 일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호는 올해 중국에서 온 교류원의 칼럼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mailto: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mailto: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mailto: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mailto: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